物名의 借字表記 硏究(1)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오 창 명*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物名의 借字表記
3.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고문헌이나 고문서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려는 계획 아래 이루어진 연구의 하나로, 『園幸乙卯整理儀軌』에 나타나는 物名의 차자 표기를 연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園幸乙卯整理儀軌』는 조선 正祖의 어머니이자 思悼世子의 부인인 惠慶宮 洪氏의 回甲宴을 기록한 책이다. 회갑연은 1795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華城(지금의 수원)에서 벌였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기록한 것이다. 책의 구성은 卷首, 卷1~卷5, 附編1~附編4 등 모두 10권 8책으로 되어 있다. 題名(또는 外題)과 版心題는 整理儀軌라 하였고, 卷首題와 卷尾題는 園幸乙卯整理儀軌라 하였으나, 전자보다는 후자로 많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 알려졌다.

1994년 서울대학교 奎章閣에서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儀軌編이라 하여 『園幸乙卯整理儀軌』(上·中·下)를 영인·간행함으로써 일반에게 많이 알려졌고, 1996년 수원시에서 『園幸乙卯整理儀軌(原典)』를 영인·간행하고 『원행을묘정리의궤(역주)』를 간행하여 일반인이 쉽게 참고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고문헌과 마찬가지로 차자 표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차자 표기 해독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어사전은 물론 한국한자어사전 등에도 등재되지 않은 어휘가 수두룩하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리가 계속되어야 우리말의 차자 표기가 종합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특히 아직도 국어사전류에는 차자 표기의 상당수가 마치 한자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빨리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내고 국어사전류 등에 등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莫只鳳頭, 胖卜只, 方文里, 釣乃, 東海, 膏音缸, 登每, 巨達, 荳只, 汗音 등을 역주에서는 각각 '막지봉두, 양볶기, 방문리, 조내, 동해, 고음항, 등매, 거달, 얼지, 한음'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각각 '막이봉두, 양볶이, 방그리, 조니>조리, 동히>동이, 고롬항>고름항, 등미>등매, 거덜, 얽이, 썸'의 잘못이다. 『園幸乙卯整理儀軌』의 '역주'에는 이러한 것이 부지기수로 나타난다. 심지어는 역주자마다 차자 표기를 달리 해독한 경우도 있다. 가령 荳只를 한 역주자는 '얼지'라 읽었고, 한 역주자는 '얼기'라 읽었다. 옛 문헌의 차자 표기에 대한 올바른 해독과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한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도 차자 표기에 관한 지식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역주와 해석에 문제가 많다.

차자 표기의 해독음은 가급적 중세어 또는 근대어로 중심으로 하고, 자료의 해석에서는 현대 표준어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힌다.[1]

1) 오창명(1997)에서 언급한 것은 가급적 제외하였다.

그리고 物名의 차자 표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몇 개의 수량단위명사도 이에 포함시켰다.

2. 物名의 借字表記

1) 卜馬[짐몰>짐말], 卜馬軍[짐몰군]

卜馬는 고유어 '짐몰>짐말', 卜馬軍은 '짐몰군'의 차자 표기로, 卜은 '짐'의 훈독자 표기, 馬은 '몰>말'의 훈독자, 軍은 '군'의 음독자 표기이다. 각종 국어사전류와 한자사전류에서는 卜馬를 '복마'로 읽고, '짐을 싣는 말' 또는 '짐을 실어 나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卜馬에 쓰인 卜은 '짐'의 뜻으로 쓰임은 물론 '짐'으로 읽어야 하는 한국한자이다. 곧 卜은 '짐'의 훈독자인 것이다. 『한국한자어사전』(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권1의 卜자항을 보면, 卜馬는 '복마'로 읽고 '짐말. 짐을 싣는 말'이라고 풀이했으나, 卜房은 '짐방'이라 읽고 '싸전 따위에서 짐을 전문으로 맡아 나르는 사람'인 '짐방'의 차자 표기라 하였다. 그리고 각종 국어사전류에도 '짐방'을 고유어로 등재했을 뿐 卜房을 등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卜馬는 '짐말'로 읽어야 하는 차자 표기이다. 卜直도 '복직'이 아니라 '짐지기'의 차자 표기이다.

> 輜重卜馬軍四十名米五石五斗… 卜馬九匹二時草價錢每匹每時二分/치중짐말군 마흔 명은 쌀 닷 섬 닷 되…짐말 아홉 필의 시초의 값은 매 필 매 시에 두 푼. 『園幸乙卯整理儀軌』(권3, 啓目, 2ㄴ).

2) 水剌[슈라>수라]

水剌은 '슈라>수라'의 차자 표기로, 水는 '슈>수'의 음가자 표기, 剌은 '라'의 음가자 표기이다.[2] '슈라>수라'는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2) 『漢韓大字典』(민중서림)과 『東亞漢韓大辭典』(동아출판사) 등에는 剌항의 설명에

밥을 높여 이르던 말'로, 몽고어 'sülen'의 차용어이다.

朝水剌[初九日○十六日回鑾時晝水剌同]/아침 수라[초9일○16일 회란시의 낮 수라도 같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1ㄴ).

3) 助致[죠치>조치]

助致는 고유어 '죠치>조치'의 차자 표기로, 助는 '죠>조'의 음가자 표기, 致는 '치>치'의 음가자 표기이다. '죠치(<칠대 13>)>조치'는 '바특하게 만든 찌개나 찜'을 뜻하는 말이다.

助致二器[秀魚蒸骨湯○回鑾時秀魚蒸代軟鷄蒸]/조치 2그릇[숭어증골탕○회란시에는 숭어찜은 영계찜으로 대신한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4) 炙伊[젹이>적이]

炙伊는 '젹이>적이'의 차자 표기로, 炙은 '젹>적'의 훈독자 표기(炙 젹 젹<훈몽-초, 중:10>),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炙伊는 '적구이'를 뜻하는 말인데, 현대어에서는 거의 잊혀졌다.

炙伊一器[黃肉猪匏飛牛足秀魚生雉○回鑾時錦鱗魚腰骨胖雪夜炙]/적이 1그릇[쇠고기, 돼지갈비, 소발, 숭어, 날꿩○회란시에는 쏘가리, 허리뼈, 양으로 만든 설야적[3]].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서, '수라(水剌) 라'라고 하고는 水剌(수라), 水剌床(수라상) 등의 어휘를 등재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곧 剌이 '라'이 차자 표기로 쓰인 것이지 剌가 '라'의 차자 표기로 쓰인 것은 아니다. 이희승 편의 『국어대사전』(민중서림)에도 '수라(水剌)', '수라상(水剌床)'으로 등재하고 있는데, 역시 剌는 剌의 잘못이다.

3) 雪夜炙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다음에 보이는 雪裏炙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雪裏炙 此是開城府內古來名物. 作法 牛肋或牛心 油葷作炙 炙至半熟 沈于冷水 一爨時 熾炭更炙至熟 雪天冬夜 爲下酒物 肉甚軟 味甚佳.『海東竹枝』(中, 飮食名物, 雪裏炙).

5) 胖[양]

胖은 '소의 밥통(쇠밥통)'의 뜻을 가진 '양'의 음가자 표기이다. 胖이 '東俗牛胃曰胖[胖 吾東之助字也. 去聲] 『與猶堂全書』(雅言覺非)'과 '獸胃稱胖(胖 音양)『書永編』'과 같이 한국한자로 '양'의 뜻으로 쓰인다면 음독자로 볼 수도 있다. 胖卜只는 '양볶이'(양 볶은 것)의 차자 표기이다.

胃 양 위<신합, 상:22>. 肚 양 郎胃也 俗名膿<탕액 1:42>

炙伊一器[黃肉猪䏚飛牛足秀魚生雉○回鑾時錦鱗魚腰骨胖雪夜炙]/적이 1그릇[쇠고기, 돼지갈비, 소발, 숭어, 날꿩○회란시에는 쏘가리, 허리뼈, 양으로 만든 설야적].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生餗蒸一器[回鑾時胖卜只] 胖饅頭一器[回鑾時全餗熟]/생복찜 1그릇[회란시에는 양 볶은 것.], 양만두 1그릇[회란시에는 전복 익힌 것].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6) 䏚飛·䏚非[갈비], 䏚伊[갈이>가리], 牛䏚非[쇠갈비], 猪䏚飛[돼지갈비], 䏚飛蒸[갈비찜>갈비찜]

䏚飛·䏚非는 '갈비'의 차자 표기, 䏚伊는 '갈이'의 차자 표기이다. 䏚은 '갈'의 음가자 표기, 飛와 非는 '비'의 음가자 표기,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䏚伊[갈이>가리]는 '갈비'를 이르는데, 중세어에도 '가리'가 쓰였고 현대어에도 '가리'가 남아있다. 제주도방언에서 이르는 '으뀨갈리'(옆구리)와 같이 '갈리'로 나타난다. '가리'는 '갈비>갈비>갈이>가리'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牛䏚非는 '쇠갈비', 猪䏚飛는 '돼지갈비', 䏚飛蒸은 '갈비찜>갈비찜'의 차자 표기이다.

肋條骨 가리뼈<동해, 상:16>. 肋 가리뼈<한청 12:30>. 肋條 가리뼈<역해, 상:35>.

牛䏚非一代/쇠갈비 1대.『度支準折』(肉物).

䏚伊一隻六斤/가리 1척은 6근이다.『陽智縣邑誌』(事例).

炙伊 一器[黃肉猪匊飛牛足秀魚生雉○回鑾時錦鱗魚腰骨胖雪夜炙]…各色炙 一器[匊飛牛足腰骨雪夜炙散炙以上挾盤○回鑾時雪夜炙代生雉]/적이 1그릇[쇠고기, 돼지갈비, 우족, 숭어, 날꿩○회란시에는 쏘가리 허리뼈, 양으로 설야적을 준비한다.]. 각색의 적 1그릇[갈비, 소발, 허리뼈로만든 설야적과 산적 등을 협반에 마련한다○회란시에는 설야적을 날꿩으로 대신한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十六日朝水剌匊飛蒸/16일 아침 수라는 갈비찜으로 한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5ㄱ).

7) 佐飯[자반]

佐飯은 '좌반>자반'의 차자 표기로, 佐는 '좌>자'의 음가자 표기, 飯은 '반'의 음가자 표기이다. '자반'은 '①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쪄서 만든 반찬. ②조금 짭짤하게 졸이거나 무쳐서 만든 반찬'을 뜻한다.

佐飯一器[鹽民魚不鹽民魚片脯鹽脯鹽松魚乾雉全鰒包醬卜只]/자반 1그릇[소금에 절인 민어, 소금에 절이지 않은 민어의 편포와 염포, 소금에 절인 송어, 말린 꿩고기, 전복에 장을 얹여 볶기.].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8) 卜只[볶이], 胖卜只[양볶이]

卜只는 '볶이'의 차자 표기로, 卜은 '복' 또는 유사음 '볶'의 음가자 표기, 只는 '기' 또는 유사음 '끼'의 음가자 표기이다. 卜只는 오늘날 '떡볶이'에서와 같이 '볶이'로 남아있는데, '볶다'의 명상형이라기보다는 '볶은 것(음식)'이란 뜻으로 쓰였다. 胖卜只는 '양볶이'의 차자 표기이다.

佐飯一器[鹽民魚不鹽民魚片脯鹽脯鹽松魚乾雉全鰒包醬卜只]/자반 1그릇[소금에 절인 민어, 소금에 절이지 않은 민어의 편포와 염포, 소금에 절인 송어, 말린 꿩고기, 전복에 장을 더하여 볶은 것.]. 『園幸乙卯整理儀軌』(권

4, 饌品, 2ㄱ).

生鰒蒸一器[回鑾時胖卜只]/생복찜 1그릇[회란시에는 양 볶은 것.]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9) 饅頭[만두], 胖饅頭[양만두]

饅頭는 '만두'의 차자 표기로, 饅은 음가자 표기[4], 頭는 '두'의 음가자 표기이다. 胖饅頭는 '양만두'의 차자 표기로, '양으로 만든 만두'를 이른다.

餛 만두 혼 鈍 만두 둔 餛鈍卽변시<훈몽-초, 중:10>.

生雉餠一器[回鑾時魚饅頭]/날꿩으로 만든 떡 1그릇[회란시에는 고기만두로 한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胖饅頭一器[回鑾時全鰒熟]/양만두 1그릇[회란시에는 전복 익힌 것].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10) 古之[고지], 朴古之[박고지]

古之는 '고지'의 차자 표기로, 古는 '고', 之는 '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고지는 '호박, 박, 가지, 고구마 따위를 납작납작하거나 잘고 길게 썰어 말린 것'을 이른다. 朴古之는 '박고지'의 차자 표기로, 朴은 '박'의 음가자 표기이다. '박고지'는 '여물지 아니한 박의 속을 파내어 길게 오려서 말린 반찬거리'를 이른다.

菜一器[朴古之水芹桔叟菁笋竹笋葱笋靑苽○回鑾時熟菜]/나물 1그릇[박고지, 미나리, 도라지, 무싹, 대싹, 파싹, 청고○회란시에는 나물을 익힌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11) 東海[동히>동히], 陶東海[딜동히], 鍮東海[놋동히]

4) 우리나라에서는 饅을 '만두 만'이라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훈독자가 된다.

東海는 '동히>동히'의 차자 표기로, 東은 '동>동', 海는 '히'의 음가자 표기이다. '동히>동히'는 질그릇의 하나로, 흔히 물을 긷거나 탕 따위를 넣는 데 쓰는 것으로써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는 '동이'를 이른다.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동이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陶東海는 '딜동히'의 차자 표기로, 현대어 '질동이'에 해당한다. 鍮東海는 '놋동히'(놋동이)의 차자표기이다.

陶東海一坐價錢九分/질동이 한 좌, 값은 아홉 푼.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鴈幄, 59ㄱ).

行擔湯一東海/ 행담탕 1동이.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2ㄱ).

鍮東海一坐/놋동이 한 좌.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7ㄴ).

12) 悅口子 · 悅口資[열구ᄌᆞ>열구자]

悅口子 · 悅口資는 '열구ᄌᆞ>열구자'의 차자 표기로, 悅은 '열'의 음가자, 口는 '구'의 음가자, 子와 資는 'ᄌᆞ>자'의 음가자 표기이다. 오늘날의 국어사전류에는 '悅口子, 悅口子湯, 口子, 口子湯' 등이 표제어로 올라있으나, 이들은 차자 표기 또는 取音표기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廣才物譜』(2, 飮食部, 膳)에 '悅口子 열구ᄌᆞ 火壺 新設爐'라 한 것으로 보아 '열구ᄌᆞ>열구자'는 고유 음식의 한 종류로 보인다.

悅口資湯一器/열구자탕 1그릇.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4ㄴ).

13) 陽支頭[양지머리]

陽支頭는 '양지머리'의 차자 표기로, 陽은 '양'의 음가자, 支는 '지'의 음가자, 頭는 '머리'의 훈독자 표기이다. '양지머리'는 '소의 가슴에 붙은 뼈와 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片肉…器[陽支頭牛舌猪胞 初十日朝水刺煎油花…]/편육 1그릇[양지머리, 소의 혀, 돼지의 삼, 조10일 아침수라에는 저냐]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5ㄱ).

14) 引切味[인절미>인절미]

引切味는 '인절미>인절미'의 차자 표기로, 引은 '인', 切은 '절>절', 味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인절미(飯餠 今俗呼一飢 인절미<사해-중, 상:13>)>인절미'는 '찹쌀을 쪄서 떡메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묻힌 떡'을 이른다. 예문의 引切味餠[인절미떡]은 引切餠[인절미떡]과 같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미'를 표기에 반영않기도 했다.

各色引切味餠一器/각색의 인절미 떡 1그릇.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5ㄱ).

引切餠一器/인절미 떡 한 그릇.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6ㄴ).

15) 登每[등메]

登每는 '등메'의 차자 표기로, 登은 '등', 每는 '매'의 유사음 '메'의 음가자 표기이다. '등메'는 '헝겊으로 가장자리 선을 두르고 뒤에 부들자리를 대서 꾸민 돗자리'를 이른다.

彩花登每六坐…馬蹄紋一張半登每四浮/채색꽃 등메 6좌…말굽무늬 1장 반이 붙어있는 등메 4부.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37ㄴ~38ㄱ).

16) 炙串[젹곶>적꽂], 於音炙串[어름젹꼿>어름적꽂]

炙串은 '젹곶>적꽂', 於音炙串은 '어름젹꼿>어름적꽂'의 차자 표기로, 炙은 '젹>적'의 훈독자, 串[젹고지>적꼬치], 於音炙串[젹고지>적꼬치] '젹곶'(簽子 젹곶<역해, 하:14>, 젹곶/鐵串<은중 23>)은 현대어 '적꽂·적꼬치'에 대응하는데, '-곶'은 '곶-'(현대어는 '꽂-))의 변음 '곶-'의 어간형이다. 제주방언에서는 '적고지[저꼬지]'로 실현된다. '어름젹꼿'은 현

대어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炙串二百箇 於音炙串三百箇/적꽂 이백 개, 어름적꽂 삼백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17) 釣乃[됴ᄂᆡ>조ᄂᆡ>조리]

釣乃는 '조ᄂᆡ>조리'의 차자 표기로, 釣는 '됴>조'(釣 낙시 됴<왜어, 하:15>)의 음가자, 內는 'ᄂᆡ'의 음가자 표기이다. 현대어 '조리'를 이르는데, 근대국어에서 '조릐'(笭箵 漁具 蓋조릐之類<물명 2:1>), 현대국어에서 '조리'라 하고, 다른 고문헌에서 釣來[됴릐>조릐>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됴릐' 또는 '*됴릐'의 변음을 반영한 차자 표기가 釣乃로 보인다.

釣乃三箇/조리 세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18) 卜直[짐지기], 庫直[고지기], 文書直[문서지기]

卜直은 '짐지기', 庫直은 '고지기', 書直은 '서지기'의 차자 표기로, 卜은 '짐'의 음독자(한국한자), 直은 '지기'의 음가자, 庫은 '고'의 음독자, 文書는 '문서'의 음독자 결합 표기이다.

卜直七名/짐지기 7명. 『園幸乙卯整理儀軌』(권5, 賞典, 47ㄱ).

庫直三名…文書直四名/고지기 세 명…문서지기 네 명. 『園幸乙卯整理儀軌』(권5, 賞典, 54ㄴ).

19) 盤只伊[반기이]

盤只伊는 '반기이'의 차자 표기로, 盤은 '반'의 음독자, 只는 '기'의 음가자, 伊는 '이' 또는 말모음 'ㅣ'의 음가자 표기이다. '반기이'는 현대국어에 '반기'로 남아있는데, '잔치나 제사 후에 여러 군데에 나누어 주려

고 목판이나 그릇에 몫몫이 담아 놓은 음식'을 이른다. 다른 고문헌에서는 錚盤只[쟁반기], 盤只[반기]로도 나타난다.

整理堂上郎廳各倭盤只伊一床 書吏書寫小錚盤只伊一/정리당상과 낭청은 각기 왜반기 한 상, 소리와 서사는 작은 쟁반기 하나. 『園幸乙卯整理儀軌』(권5, 賞典, 40ㄱ).

扈衛隊領尉官錚盤只一 軍官錚盤只一/호위대 영관과 위관은 쟁반기 하나, 군관은 쟁반기 하나. 『進宴儀軌(高宗壬寅)』(2, 饌品).

大殿出入番內官盤只一 燈燭差備內官盤只一/대전 출입번 내관 반기 하나, 등촉 차비내관 반기 하나. 『進宴儀軌(高宗壬寅)』(2, 饌品).

20) 周틱[주걱], 木周틱[남주걱]

周틱은 '주걱', 木周틱은 '남주걱'의 차자 표기로, 周는 '주'의 음가자, 틱은 '걱'의 음가자, 木은 '남'의 훈독자 표기이다.

周틱六箇/주걱 여섯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5, 賞典, 47ㄱ).

21) 膏飮·膏音[고음>고옴>곰], 膏音缸·膏飮缸[고음항>고옴항>곰항>곰항]

膏飮·膏音은 '고음>고옴>곰'의 차자 표기로, 膏는 '고롬'(膿 골믈 농 俗稱膿水고롬<훈몽-초, 상:15>)의 어두음 '고'의 훈가자, 飮과 音은 '음' 또는 말음 'ㅁ'의 음가자 표기이다. 膏飮缸·膏音缸은 '고음항>고옴항>곰항>곰항'의 차자 표기이다. '고음>고옴>곰'은 고기나 생선을 진한 국물이 나오도록 푹 삶은 국을 이르는데, '고으-(熬 고을 오 炮毛肉熟之 又埋物灰中熟之 卽煨也<훈몽-초, 하:6>)>고오-(煎熬 고오다 又달히다<한청 12:54>)>고-'에 명사형성접사 '-ㅁ'이 덧붙은 것이다. 현대어에서는 '곰'이라 한다. 관련 어휘로 '곰국, 곰탕' 등이 있다. '고음항>고옴항>곰항>곰항'은 '곰'을 넣는 항을 이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졌다.

膏飮一器[陳鷄牛臂全艘胖]/곰 한 그릇[묵은닭, 소 볼기, 전복, 양].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8ㄴ).

膏飮缸二坐/고음항 두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膏音缸六箇/고름항 여섯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5, 賞典, 47ㄱ).

22) 要江[요강]

要江은 '요강'의 차자 표기로, 要는 '요'의 음가자, 江은 '강'의 음가자 표기이다.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 또는 놋쇠나 양은, 사기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 것을 이른다. '요강'은 한자어 '요항'(尿缸)의 변음일 가능성이 짙다.(伏虎 械 尿缸 뇨강<물보, 궤안>) 다른 문헌에서는 溺江[용강]으로도 표기된다.

要江四坐/요강 네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5, 賞典, 47ㄱ).

23) 地衣[디의>지의]

地衣는 '디의>지의'의 차자 표기로, 地는 '디(筵 디의 연<천자-석19>)>지'의 음가자, 衣는 '의'의 음가자 표기이다. '디의>지의'는 가장자리를 헝겊으로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든 돗자리를 이르는데, 주로 제사 때에 쓴다.

四張付白紋地衣十二浮　十張付白紋地衣四浮　二張半付白紋地衣八浮/네 장의 흰무늬가 붙은 지의 12부, 열 장의 흰무늬가 붙은 지의 4부, 두 장 반의 흰무늬가 붙은 지의 여덟 부. 『園幸乙卯整理儀軌』(권5, 賞典, 46ㄴ).

24) 巨達[거덜]

巨達의 음은 '거달'이지만 이는 '거덜'의 차자 표기로, 巨는 '거'의 음가자, 達은 '덜'의 음가자 표기이다. 達이 '덜'의 음가자로 쓰인 것은 '덜'이라는 한자음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음을 가진 達은 쓴 것이다.

'거덜'은 조선 시대에, 사복시에 속하여 말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던 종을 이른다.

> 獨轎馬巨達十四名 走馬巨達十五名 使喚巨達三名 以上各木一四/독교마 거달 14명, 주마 거달 15명, 사환 거달 3명 등 이상 각기 무명 한 필.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司僕定例, 81ㄱ).

25) 亐里・于里[우리]

亐里는 '우리'의 차자 표기로, 亐는 '우'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우리'는 그릇이나 물건 따위의 테두리에 둘러매거나 끼우는 테를 이른다. 다른 문헌에서는 于里[우리]로도 표기된다.

> 坐排亐里二年木/좌배우리 용 이년목.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55ㄱ).
>
> 石鏡亐里所入豆錫八兩/거울 우리에 들어가는 놋쇠 여덟 량.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駕轎, 61ㄴ).

26) 乼[줄], 所[바], 艮衣[간의], 所[바], 㯙皮所[달피바]

乼은 '줄', 所는 '바', 艮衣는 '간의'의 차자 표기로, 乼은 '줄'의 음가자, 所는 '바'의 훈가자, 艮은 '간'의 음가자, 衣는 '의'의 음가자 표기이다. 예문의 㯙皮所는 '달피바'의 차자 표기로, 달피나무의 껍질로 만든 바를 이른다. '간의'는 '새끼나 끈 따위를 사리어 뭉친 것'을 이르는 '거리'에 대응하는 말이다.

> 乼十六艮衣/줄 열 여섯 거리.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駕轎, 61ㄴ).
>
> 㯙皮所二百艮衣/달피바 이백 거리.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9ㄱ).

27) 莫只[막기]

莫只는 '막기'의 차자 표기로, 莫은 '막'의 음가자,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막기'는 말 그대로 '막-'의 명사형이다.

> 莫只正鐵…莫只鳳頭四箇/막기 시우쇠…막기봉두 네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駕轎, 61ㄱ).

28) 方文里[방그리]

方文里는 '방그리'의 차자 표기로, 方은 '방'의 음가자, 文은 '글' 또는 '글'의 일부음 '그'의 음가자, 里는 '리' 또는 '리'의 일부음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현대어 '방구리'(주로 물을 긷거나 술을 담는 데 쓰는 질그릇. 모양이 동이와 비슷하나 좀 작다.)에 대응한다.

> 方文里五箇價錢二錢[每箇四分]/방구리 다섯 개. 값은 두 돈[매 개에 네 푼].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駕轎, 61ㄱ).

29) 汗音[쌤>땜]

汗音은 '쌤>땜'의 차자 표기로, 汗은 '째-'(銲 쌜 한 以藥固金鐵令相着使不解也<훈몽-초, 하:7>)의 훈가자, 音은 말음 'ㅁ'의 음가자 표기이다. '땜'은 '땜' 또는 '땜질'의 뜻으로 쓰인다.

> 汗音 ᄯᅥ음<行用吏文>. 銲 ᄯᅥ임질<물명 5:7>
>
> 銀甁二坐[…足汗音次銀一錢五分…]/은병 두 좌[…발 땜 감 은 한 돈 닷 푼…]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35ㄴ).
>
> 麽要一坐[所入熟銅三斤十二兩 汗音天銀二錢…]/마요 한 좌[여기에 들어가는 숙동 세 근 열 두 냥, 땜질용 천은 두 돈…].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駕轎, 56ㄴ).

30) 孼骨[얼골]

孼骨은 '얼골'의 차자 표기로, 孼은 '얼'의 음가자, 骨은 '골'의 음가자 표기이다. '얼골'은 '얼골장지', 곧 지게문에 장지 짝을 덧들인 문인 '장

지문'을 이른다.

㲋骨二年木/얼골은 이년목으로 한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鴈幡, 55ㄱ).

31) 㲋只[얽이]

㲋只는 '얽이'의 차자 표기로, 㲋은 '얼' 또는 유사음 '얽'의 음가자, 只는 '기' 또는 일부음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현대어 '얽이'에 해당한다. '얽이'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겉을 새끼나 노끈 따위로 이리저리 싸서 얽는 일. 또는 그렇게 얽는 물건을 이른다.

㲋只靑綿絲二斤九兩/얽이용 청면사 두 근 아홉 냥.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鴈幡, 55ㄱ).

32) 貼[첩], 排目[비목>배목], 帳巨里[장걸이], 帳巨里金[장걸이쇠], 鴨項釘[오리목못], 曲釘[곱못]

帳巨里는 '장걸이', 帳巨里金은 '장걸이쇠', 鴨項釘은 '오리목못', 曲釘은 '곱못'의 차자 표기로, 帳은 '장'의 음가자, 巨는 '거'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金은 '쇠'의 훈독자, 鴨은 '오리'의 훈독자, 項은 '목'의 훈독자, 釘은 '못'의 훈독자 표기이다. '장걸이'는 장롱 따위에 걸어 놓는 노리개 따위 장식, '장걸이쇠'는 장롱 따위에 걸어 놓는 노리개 따위의 쇠 장식을 이른다.

各樣赤貼圓環排目帳巨里金鴨項釘曲釘/각양의 붉은 첩, 둥근 고리의 배목, 장걸이쇠, 오리목못, 곱못.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鴈幡, 55ㄱ).

33) 乭金[걸쇠>걸쇄>걸새>걸쇠]

乭金은 '걸쇠>걸쇄>걸새>걸쇠'의 차자 표기로, 乭은 '걸'의 음가자,

金은 '쇠'의 훈독자 표기이다. '걸쇠'는 대문이나 방의 여닫이 문을 잠그기 위하여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를 이른다.

쇠 걸쇠는 文關을 열오져 ᄒᆞ놋다(鐵鎖欲開關)<두해-초, 11:50>
쇠 걸쇄ᄂᆞᆫ 文關을 열오저 ᄒᆞ놋다(鐵鎖欲開關)<두해-중, 11:50>
釘 걸새 료<왜어, 상:32>
叟金開閉各樣裝飾正鐵/걸쇠 개폐용 각양 장식의 정철.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鴛轎, 55ㄱ).

34) 浮豆只[부두기]

浮豆只는 '부두기'의 차자 표기로, 浮는 '부'의 음가자, 豆는 '두'의 음가자,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浮獨只·夫都只·不毒只[부도기] 등으로도 표기된 것으로 보아, 근대국어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부도기'라 하고, 이의 변음이 '부두기'로 보인다. 현대의 국어사전류에서는 '부도기'는 '부디기의 잘못'이라 하였고, 표준어로는 '부디기'라 하였다. '부디기'는 삶은 국수를 가마에서 건져내는 데에 쓰는 기구로, 보통 올이 굵은 베로 자루 모양으로 만들어 아가리에 굵은 철사나 나뭇가지 따위로 손잡이를 붙인다.

浮獨只 부독이 小篩 以柮木圍作小圍 而布匝漉水者也.<行用吏文>.
浮豆只布十尺/부디기 베 열 자.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5ㄱ).

35) 條里[조리], 條里木[조리목]

條里는 '조리', 條里木은 '조리목'의 차자 표기로, 條는 '조'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木은 '목'의 음독자 표기이다. '조리'는 대나 나무 따위를 가늘고 길게 만든 것을 이르고, '조리목'은 '가늘고 길게 베어 낸 막대기'를 이른다.

條里木十七立/조리목 열 일곱 닢.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9ㄱ).

36) 擧乃[걸레]

擧乃는 '걸레'의 차자 표기로, 擧는 '걸'의 어두음'거'의 음가자, 乃는 '레'의 현실 발음 '내'의 음가자 표기이다. '걸레'는 더러운 곳을 닦거나 훔쳐내는 데 쓰는 헝겊을 이른다.

擧乃布二疋十尺/골레용 베 두 필 열 자.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5ㄱ).

37) 都干伊[도가니]

都干伊는 '도가니'의 차자 표기로, 都는 '도'의 음가자, 干은 '간' 또는 '가+ㄴ'의 음가자,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도가니'는 '무릎도가니' 또는 '소의 볼기에 붙은 고기'를 이른다. '무릎도가니'는 소 무릎의 종지뼈와 거기에 붙은 고깃덩이. 또는 '종지뼈'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刀干[도가니]으로도 나타난다.

膏飮一器[胖都干伊陳鷄]/곰 한 그릇[양, 도가니, 묵은닭].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7ㄱ).

38) 凉盆[양푼], 鍮凉盆[놋양푼]

凉盆은 '양푼'의 차자 표기로, 凉은 '양'의 음가자, 盆은 '분'의 유사음 '푼'의 음가자 표기이다. '양푼'은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에 쓰는 놋그릇으로, 운두가 낮고 아가리가 넓어 모양이 반병두리 같으나 더 크다. 鍮凉盆은 '놋양푼'의 차자 표기이다.

鍮凉盆三坐/놋양푼 세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7ㄱ).

39) 骨湯[골탕]

骨湯은 '골탕'의 차자 표기로, 骨은 '골'의 음독자, 湯은 '탕'의 음독자 표기이가. '골탕'은 소의 등골이나 머릿골에 녹말이나 밀가루 따위를 묻혀 기름에 지지고 달걀을 씌운 후 이를 맑은장국에 넣어서 다시 끓여 익힌 국을 이른다.

40) 間莫只[간막], 間莫只湯[간막탕]. 猪間莫只[돼지간막]

間莫只는 '간막', 間莫只湯은 '간막탕'. 猪間莫只는 '돼지간막'의 차자 표기로, 間은 '간'의 음가자, 莫은 '막' 또는 어두음 '마'의 음가자, 只는 '기'의 어두음 'ㄱ'의 음가자 표기이다. 현대의 국어사전류에는 '간막'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간막탕=간막국'만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는 '간막탕'은 '간막국'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간막탕'은 소나 돼지의 머리, 꼬리, 가슴, 등, 볼기, 뼈, 족, 허파, 염통, 간, 처녑, 콩팥 따위를 조금씩 고루 다 넣고 소금에 끓인 탕을 이른다. '소간막'은 소의 것을 넣어 끓인 탕이고, '돼지간막'은 돼지의 것을 넣어 끓인 탕임을 알 수 있다.

回鑾時 間莫只湯所入猪間莫只一部…/회란 시에는 간막탕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돼지간막 한 부…등이 들어간다..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3ㄴ).

41) 束古里[속고리]

束古里는 '속고리'의 차자 표기로, 束은 '속'의 음가자, 古는 '고'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계축일기>에 '소코리'와 '속고리'가 나오는데, 束古里는 '속고리'를 차자로 표기한 것이다.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인 '소쿠리'를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小古里[속고리]가 확인된다.

束古里三十箇/소쿠리 서른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5ㄱ).

42) 所古味[바고미]

所古味는 '바고미'의 차자 표기로, 所는 '바'의 훈가자, 古는 '고'의 음가자, 味는 '미'의 음가자 표기이다. '바고미'는 현대어 '바구니'를 이른다. 현대 국어사전류에서는 '바구니'를 뜻하는 강원과 경상 방언으로 '바구미'를 등재하였는데, 所古味[바고미]가 바로 이 '바구미'의 변음을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所昆里[바고니]가 확인되는데, 이는 『소학언해』(권4, 47)에서 확인되는 '바곤이'[簞]에 대응하는 것이다.

大所古味五箇/큰 바구니 다섯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2ㄴ).

43) 烏脂[오지], 烏脂缸[오지항]

烏脂는 '오지', 烏脂缸은 '오지항'의 차자 표기로, 烏는 '오'의 음가자, 脂는 '지'의 음가자, 缸은 '항'의 음독자 표기이다. '오지'는 '오지그릇'을 이르는데,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오짓물을 입혀 다시 구운 질그릇으로, 검붉은 윤이 나고 단단하다.

烏脂缸一百五十坐/오지항 백 오십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5ㄱ).

44) 執介[집게]

執介는 '집게'의 차자 표기로, 執은 '집'의 음가자, 介는 '개'의 유사음 '게'의 음가자 표기이다. '집게'는 물건을 집는 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를 이른다.

鉗 집게 겸 俗呼鉗子<훈몽-초, 중:8>

小執介一部/작은 집게 한 부.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39ㄴ).

45) 毛老[모로]

毛老는 '모로'의 차자 표기로, 毛는 '모'의 음가자, 老는 '로'의 음가자 표기이다. '모로'는 현대어 '모루'에 대응하는데,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를 이른다. 『박통사언해』(하, 29)와 『물명고』(5, 7)에서 '모로'[鐵枕·鍖]를 확인할 수 있다.

毛老五坐[椎具]/모루 다섯 좌[망치를 갖춘 것].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4ㄴ).

46) 鐵工伊[쇠공이]

鐵工伊는 '쇠공이'의 차자 표기로, 鐵은 '쇠'의 훈독자, 工은 '공'의 음가자,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가. '쇠공이'는 쇠로 만든 공이로, 주로 쇠절구에 쓰며 나무공이보다 작다.

鐵工伊五箇/쇠공이 다섯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4ㄴ).

47) 入里[들이], 甁入里[병들이], 半甁入里[반병들이]

入里는 '드리>들이', 甁入里는 '병들이'의 차자 표기로, 入은 '들' 또는 일부음 '드'의 훈독자, 里는 '리' 또는 일부음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들이'는 보통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용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한 말들이)로 쓰이는데, '병들이'와 같이 그릇 따위의 명사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하나, 현대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鎰半甁入里二坐/놋병 반병들이 두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5ㄱ).

48) 炙金[젹쇠>적쇠], 鑱金[섥쇠>설쇠], 鑱者[섥자>설자>설자]

炙金은 '격쇠>적쇠'의 차자 표기로, 炙은 '격>적'(炙 젹 격<훈몽-초, 중:10>)의 음독자, 金은 '쇠'의 훈독자 표기이다. 鐉金는 '섥쇠>설쇠'의 차자 표기로, 鐉은 '섥>설'의 음가자, 金은 '쇠'의 훈독자 표기이다. 鐉者는 '섥쟈>설쟈>설자'의 차자 표기로, 鐉은 '설'의 음가자, 者는 '쟈>자'의 음가자 표기이다. 炙金[격쇠>적쇠]는 근대국어의 '격쇠'(鐵撐 격쇠<역해, 하:13>)에 대응하고, 鐉金[섥쇠>설쇠]는 근대국어의 '섯쇠'(炙床 고기 굼는 섯쇠<역해, 하:13>)에 대응하고, 鐉者[섥쟈>설쟈>설자]는 근대국어의 '섯자'(杓 나므쥭 쟉 俗呼木曰槭杓 銅曰銅杓 섯쟈 曰漏杓<훈몽-초, 중:9>)에 대응한다. '격쇠'는 다른 자료에서 炙鐵[격쇠]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설쟈'는 鐉煮[설쟈]로도 표기되기도 하였다. 현대의 국어사전류에서는 '적쇠'는 '석쇠'의 방언(충청)이라 하고, 석쇠는 고기나 굳은 떡 조각 따위를 굽는 기구로, 네모지거나 둥근 쇠 테두리에 철사나 구리 선 따위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자료는 물론 차자 표기 자료를 살펴볼 때, '석쇠'와 '적쇠'는 분명히 다른 기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 국어사전류에서는 같은 기구로 처리하고 있다. '설쟈'는 현대어 '석자'에 대응하는데, 철사를 그물처럼 엮어서 바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긴 손잡이를 단 조리 기구로, 주로 기름에 튀긴 것을 건져내는 데 쓴다.

『訓蒙字會』 등에서 '섯쟈'와 '섯쟈'를 확인할 수 있으나, '섯쇠'와 '섯쟈'는 어원적으로 '섥'(篋 섥 협 笥 섥 亽<훈몽-초, 중:7>)과 '쇠'(金 쇠 금<훈몽-초, 중:15>), '쟈'(쟈/杓<법어 5>, 杓 勺升 쟈 구기<물보, 주식>)가 통합된 것이므로 각각 '섥쇠'와 '섥쟈'의 변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鐉金과 鐉者는 이 '섥쇠'와 '섥쟈'를 비교적 온전하게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炙金二十五部 鐉金十箇 鐉者五箇/적쇠 스물 다섯 부, 설쇠 열 개, 설자 다섯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4ㄴ).

49) 所羅[소라], 陶所羅[딜소라], 鍮所羅[놋소라]

所羅는 '소라'의 차자 표기로, 所는 '소'의 음가자, 羅는 '라'의 음가자 표기이다. '소라'는 현대어 '소래·소래기'에 대응하는데, 운두가 조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질그릇으로, 독의 뚜껑이나 그릇으로 쓴다. 陶所羅는 '딜소라(瓦盆 딜소라<역해 하:13>)>질소라', 鍮所羅는 '놋소라'의 차자 표기이다. 陶는 '딜(陶 딜 구울 도<훈몽-초, 중:5>)>질'의 훈독자, 鍮는 '놋'의 훈독자 표기이다. '딜소라'는 질로 만든 소래, '놋소라'는 놋쇠로 만든 소래를 이른다.

鍮所羅二坐…陶所羅十坐[大中各五]/놋소라 두 좌…질소라 열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50) 大也[대야]

大也는 '대야'의 차자 표기로, 大는'대'의 음가자, 也는 '야'의 음가자 표기이다. '대야'는 중세국어에서는 '다야'(다야 爲匜<훈민-원, 해례:26>, 盂 다야 우<훈몽-초, 중:10>)와 '대야'(巵 대야 치<훈몽-초,중:7>, 盂子 대야<역해, 하:13>)로 나타난다. 물을 담아서 얼굴이나 손발 따위를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을 이른다. 다른 자료에서는 大耶[대야], 大匜[대이]로도 표기되었다.

銅大也二坐/동대야 두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51) 函之朴[함지박]

函은 '함'의 음가자, 之는 '지'의 음가자, 朴은 '박'의 음가자 표기이다. 함지박은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이다.

函之朴六坐/함지박 여섯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52) 刀仆[도마]

刀仆는 '도마'의 차자 표기로, 刀는 '도'의 음가자, 仆는 '마'의 음가자 표기이다. '도마'는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받치는 것으로, 대부분 두꺼운 나무토막이나 널조각을 만들었다,

刀仆三坐/도마 세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53) 周鉢[쥬발>주발], 大楪[대뎝>대접], 甫兒[보ᄉᆞ], 楪匙[뎝시], 鍾子[죵ᄌᆞ>죵ᄌᆞ]

周鉢은 '쥬발>주발'의 차자 표기, 大楪은 '대뎝>대접>대접'의 차자 표기, 甫兒는 '보ᄉᆞ'의 차자 표기, 楪匙는 '뎝시>접시>접시'의 차자 표기, 鍾子는 '죵ᄌᆞ>죵ᄌᆞ'의 차자 표기로, 周는 '주'의 음독자, 鉢은 '발'의 음독자, 大은 '대'의 음독자, 楪은 '뎝(椄 뎝시 뎝 木椄 瓷椄<훈몽-초, 중:6>)>접'의 음독자, 甫는 '보'의 음가자, 兒는 'ᄉᆞ'의 음가자, 匙는 '시'의 음가자, 鍾은 '죵.종'의 음독자, 子는 'ᄌᆞ'의 음가자 표기이다. '쥬발(銅碗 쥬발<한청 11:36>)>주발'은 놋쇠로 만든 밥그릇으로, 위가 약간 벌어지고 뚜껑이 있다. 현대어 '밥주발'에 대응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周鐏[쥬발]로도 표기된다. '대뎝'은 현대어 '대접'인데, 위가 넓적하고 운두가 낮으며 뚜껑이 없는 그릇으로, 국이나 물 따위를 담는 데 쓴다. '보ᄉᆞ'(甌 보ᄉᆞ 구 盌之小者<훈몽-초, 중:7>)는 현대어 '보시·보시기'에 대응하는데, 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반찬 그릇의 하나.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뎝시'는 현대어 '접시'로, 운두가 낮고 납작한 그릇으로, 반찬이나 과일, 떡 따위를 담는 데 쓴다. '죵ᄌᆞ(천자-석 21)>죵ᄌᆞ(鍾子 죵ᄌᆞ<역해 하:11>)'는 현대어 '종지' 또는 '종재기'에 대응하는데, 간장·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종발보다 작은 그릇을 이른다. '보ᄉᆞ'의 'ᄉᆞ'와 '죵ᄌᆞ'의 'ᄌᆞ'는 현대어에서 각각 '시'와 '지'로 변했다. '주발'은 다른 자료에서 朱鉢[주발]로도 표기된다.

周鉢 一坐…大楪一坐…市兒 一坐 楪匙五坐 鍾子三坐[楪匙二坐外幷盖具]/주발 한 좌…대접 한좌…보시 한 좌, 접시 다섯 좌. 종재기 세 좌[접시 두 좌에 모두 뚜껑을 갖춘 것].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5ㄴ).

54) 飛露[비로], 飛露筒[비로통]

飛露는 '비로', 飛露筒은 '비로통'의 차자 표기로, 飛는 '비'의 음가자, 露는 '로' 또는 유사음 '노'의 음가자, 筒은 '통'의 음독자 표기이다. '비로'는 근대어에서 '비노'(皂角 비노 肥皂 上仝<역해, 상:48>, 膩子 비노<동해, 상:54>), '비로통'은 근대어 '비노통'(胰壺 비노통 膩子盒<역보 29>)으로 나타나고, 각각 현대어 '비누', '비누통'에 대응한다. '비누'는 때를 씻어 낼 때 쓰는 물건. 물에 녹으면 거품이 일며 보통 고급 지방산의 알칼리 금속염을 주성분으로 한다.≫ [?비노?박언?] 다른 자료에는 飛陋[비루>비누]로도 나타난다.

白銅飛露筒一坐…豆錫飛露筒二坐/백통 비누통 한 좌…놋쇠 비누통 두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36ㄱ).

55) 丫赤[마치], 方丫赤[방마치>방마치]

丫赤는 '마치', 方丫赤는 '방마치'의 차자 표기로, 丫는 '마'의 음가자, 赤은 '치'의 음가자, 方은 '방'의 음가자 표기이다. '마치'는 '망치'에 대응하고, '방마치(椎 마치 퇴 棒椎 방마치<훈몽-초, 중:9>)>방마치(棒槌 방마치<역해 하:15>)'는 '방망이'에 대응한다.

丫赤四箇/마치 4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36ㄴ).
方丫赤三箇/방마치 세 개.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9ㄱ).

56) 雪只[설기], 白雪只[백설기]

雪只는 '설기'의 차자 표기로, 雪은 '설'의 음가자,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설기'는 보통 '설기떡'을 이르는데, 오늘날의 국어사전에는 '백설기(白-)'와 같은 것이라 했으나, 예문을 보면 여러 종류의 '설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白雪只는 '백설기'의 차자 표기로, 현대어 '백설기'에 바로 대응한다.

各色雪只一器[高一尺二寸白雪只…蜜雪只…石耳雪只…甘草雪只…荏子雪只…] 各色蜜粘雪只一器[…蜜粘雪只…雜果粘雪只…荏子粘雪只…]/각 색의 설기 한 그릇[높이 한 자 두 치의 백설기…밀설기…석이설기…감초설기…들깨설기…], 각 색의 밀점설기 한 그릇[…밀점설기…잡과점설기…임자점설기…].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35ㄴ).

57) 助岳[조악]

助岳은 '조악'의 차자 표기로, 助는 '조'의 음가자, 岳은 '악'의 음가자 표기이다. '조악'(餃子 조악<동해, 상:59>)은 근대어 '주악'에 대응한다. '주악'은 웃기떡의 하나로, 찹쌀 가루에 대추를 이겨 섞고 꿀에 반죽하여 깨소나 팥소를 넣어 송편처럼 만든 다음, 기름에 지진다.

各色助岳及花煎三器/.각 색의 주악 및 꽃전 세 그릇.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35ㄴ).

58) 水團[슈단>수단]

水團은 '슈단>수단'의 차자 표기로, 水는 '슈(水 믈 슈<천자-석 2>)>수'의 음독자, 團은 '단'의 음독자 표기이다. '슈단(각셔는 춋발로 ᄒᆞᆫ 거시니 슈단 ᄀᆞᄐᆞᆫ 거시라<가례 1:30>, 水단子 슈단<한청 12:46>)>수단'은 쌀가루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경단같이 만들어서 삶은 후에, 냉수에 행구어 물기가 마르기 전에 꿀물에 넣고 실백잣을 띄운 음식. 흔히 유월 유두에 먹는다.

五色水團一器…麥水團一器/오색의 수단 한 그릇…보리수단 한 그릇.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35ㄴ).

59) 莞子[완자]

莞子는 '완자'의 차자 표기로, 莞은 '완'의 음가자, 子는 '자'의 음가자 표기이다. '완자'는 잘게 다진 고기에 달걀, 두부 따위를 섞어 둥글게 빚은 뒤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달걀을 씌워서 기름에 지진 음식을 이른다.

莞子湯一器/완자탕 한 그릇.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35ㄴ).

60) 徵道里[징도리]

徵道里는 '징도리'의 차자 표기로, 徵은 '징'의 음가자, 道는 '도'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징도리'는 현대어 '징두리'에 대응하는데, 비바람 따위로부터 집을 보호하려고 집채 안팎 벽의 둘레에다 벽을 덧쌓는 부분 또는 물건의 밑등이 되는 부분의 둘레, 물건의 테두리가 되는 부분을 이른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이 강하다.

毛笠十立 徵道里 纓子具 合價錢四兩/털갓 열 닙, 징두리(끈을 갖춘 것)를 합한 값 네 냥.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36ㄴ).

61) 沙吉[사술]

沙吉은 '사술'의 차자 표기로, 沙는 '사'의 음가자, 吉은 '살'의 유사음 '술'의 음가자 표기이다. '사술'은 현대어 '사슬·쇠사슬'에 대응한다.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줄을 이른다.

銀甁二坐[…沙吉次銀七錢二分五里…]/은병 두 좌[…사슬 감 은 일곱 돈 두 푼 닷 리]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7ㄱ).

62) 網席[멍석]

網席은 '멍석'의 차자 표기로, 網은 '망'의 유사음 '멍'의 음가자, 席은 '석'의 음가자 표기이다. '멍석'은 짚으로 결어 네모지게 만든 큰 깔개로, 흔히 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쓰나, 시골에서는 큰일이 있을 때 마당에 깔아 놓고 손님을 모시기도 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網石[멍석]으로도 나타난다.

網席五立/멍석 다섯 닢.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35ㄴ).

63) 斗[말], 升[되]

斗는 '말'의 훈독자, 升은 '되'의 훈독자 표기이다. '말'은 곡식, 액체, 가루 따위의 분량을 되는 데 쓰는 그릇으로, 열 되가 들어가게 나무나 쇠붙이를 이용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다. '되'는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으로,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다.

斗升各二箇/말과 되 각기 두 개.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7ㄱ).

64) 橫搗介[횡도깨]

橫搗介는 '홍도깨'의 차자 표기로, 橫은 '홍'의 변음 '횡'의 음가자, 搗는 '도'의 음가자, 介는 '개' 또는 변음 '깨'의 음가자 표기이다. '홍도깨'는 현대어 '홍두깨'에 대응하는데, 근대어에서는 '홍도ㅅ개(趕麵棍 홍도ㅅ개<몽해, 하:11>)·홍독기'로 나타난다. 다른 자료에서는 洪道介·弘道介[홍도깨] 등으로 나타난다. '홍두깨'는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도구를 이른다.

橫搗介一箇/홍도깨 한 개.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8ㄱ).

65) 砂用・沙用[사용・새용], 鍮砂用・鍮沙用[놋사용・놋새용]

砂用・沙用은 '사용・새용'의 차자 표기로, 砂와 沙는 '사' 또는 유사음 '새'의 음가자, 用은 '용>용'의 음가자 표기이다. '사용(사용/鎈子<구간3:6>)・새용(새용/銚<구방 상:51>)'은 현대어 '새옹'에 대응하는데, 놋쇠로 만든 작은 솥으로,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바닥이 편평하며 전과 뚜껑이 있다. 흔히 밥을 지어서 그대로 가져다가 상에 올려놓는다. 鍮砂用・鍮沙用은 '놋사용・놋새용'의 차자 표기이다.揭

鍮砂用二坐/놋새용 두 좌.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器用, 46ㄴ).
鍮沙用一坐/놋새용 한 좌.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7ㄴ).

66) 高沙里[고사리]

高沙里는 '고사리'의 차자 표기로, 高는 '고'의 음가자, 沙는 '사'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高沙里半半月乃/고사리 반반 타래.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6ㄴ).

67) 月乃[돌릐>돌래]

月乃는 '돌릐'의 차자 표기로, 月은 '돌'의 훈가자, 乃는 '릐>래'의 현실음 '닉>내'의 음가자 표기이다. '돌릐'는 현대어 '타래'에 대응하는데, 사리어 뭉쳐 놓은 실이나 노끈 따위의 뭉치를 이르거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리어 뭉쳐 놓은 실이나 노끈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高沙里半半月乃/고사리 반반 타래.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6ㄴ).

68) 古乭朴只[고돌바기]

古乭朴只는 '고돌바기'의 차자 표기로, 古는 '고'의 음가자, 乭은 '돌'

의 음가자, 朴은 '박' 또는 어두음 '바'의 음가자, 只는 '기'의 음가자 표기이다. '고돌바기'는 현대어 '고들빼기'에 대응하는데, 국화과의 두해살이풀로 어린잎은 식용한다. '고돌바기'는 근대국어에서 '고돌비'(苦菜… 고돌비<물명 3:16>) 또는 '고돌빡이'로 나타나는데, 古乭朴只는 '고돌빡이'를 비교적 온전하게 차자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돌빡이'보다 더 이전형은 '고줏바기'(苦菜 고줏바기<탕액 2:30>)로 나타난다.

菜一器[古乭朴只艾芥生菜]/나물 한 그릇[고들빼기, 쑥, 갓, 무친 나물].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13ㄴ).

69) 長音[길움>기룸>기름], 菉豆長音[녹두길음>녹두기룸>녹두기름]

長音은 '길움>기룸>기름'의 차자 표기로, 長은 '길'의 훈독자, 音은 '음' 또는 유사음 '움'의 음가자 표기이다. '기름'은 곡식의 낟알에서 돋은 싹을 이른다. 예문에 보이는 菉豆長音은 '녹두기름'(菉豆芽 녹두기름<역보 42>)의 차자 표기로, 현대어 '숙주나물'을 이른다. 문헌에 따라 長音菉豆[기름녹두]로 표기되기도 한다. 중세국어에서 '보리길움'(蘗 보리길움 얼<신합, 상:26>)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름'의 이전형은 '길움'임을 알 수 있다. '보리기름'은 근대국어에서 '보릿기룸'(大麥蘗 보릿기룸<탕액 1:25>)으로도 나타난다. '길움'은 '길우-'[長·養]의 명사형이다.

朴古之五吐里 菉豆長音/박고지 다섯 토리, 녹두기름.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6ㄴ).

70) 昆者巽[곤자손]

昆者巽은 '곤자손'의 차자 표기로, 昆는 '곤'의 음가자, 者는 '자'의 음가자, 巽은 '손'의 음가자 표기이다. '곤자손'은 현대어 '곤자소니'에 대응하는데, 소의 창자 끝에 달린 기름기가 많은 부분을 이른다. 다른 자

료에서는 昆者孑[곤자손]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助致二器[昆者巽蒸竹蛤炒]/조치 두 그릇[곤자소니, 찐 대, 대합조개 볶은 것].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12ㄱ).

71) 甘冬醢[감동젓]

甘冬醢은 '감동젓'의 차자 표기로, 甘은 '감'의 음가자, 冬은 '동'의 음가자, 醢은 '젓'의 훈독자 표기이다. '감동젓'은 푹 삭힌 곤쟁이젓으로, 근대국어에서는 '감동이'(紅毛醬 紫鰕鮓 감동이<물보 하:4>)로 나타난다.

醢一器[甘冬醢]/젓 한 그릇[감동젓].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17ㄱ).

72) 千葉[천엽]

千葉은 '천엽'의 차자 표기로, 千은 '천>천'의 음가자, 葉은 '엽'의 음독자 표기이다. '천엽'은 현대어 '처녑'에 대응하는데, 소나 양 따위의 반추위의 제3위(胃)로, 잎 모양의 많은 얇은 조각이 있다. 근대국어에서 '천엽'(百葉 천엽<탕액 1:42>)으로 나타난다.

助致二器[雜醬煮千葉卜只]/조치 두 그릇[잡장, 삶은 천엽 볶기].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16ㄴ-17ㄱ).

73) 明太古之[명태고지]

明太古之는 '명태고지'의 차자 표기로, 明은 '명'의 음가자, 太는 '태'의 음가자, 古는 '고'의 음가자, 之는 '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명태고지'는 명태 수컷의 정자로, 물기가 많고 핵단백질과 글리세리드 기름산, 인 기름질, 카로티노이드, 스테롤과 같은 기름질이 들어 있다. 맛이 고

소하다. 남한의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醢 一器[鰱魚卵明太古之…]젓 한 그릇[연어알, 명태고지…].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34ㄱ).

74) 所湯[바탕], 陶所湯[질바탕]

所湯은 '바탕' 또는 '바탱(-이)'의 차자 표기로, 所는 '바'의 훈가자, 湯은 '탕' 또는 유사음 '탱'의 음가자 표기이다. '바탕'은 현대어 '바탱이'에 대응하는데, 오지그릇의 하나로, 중두리와 비슷하나 배가 더 나오고 키가 작으며 아가리가 좁다. 다른 문헌에서는 所湯伊[바탱이]로도 나타난다. 陶所湯은 '질바탕' 또는 '질바탱이'의 차자 표기이다.

陶所湯四坐 / 질바탱이 네 좌.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8ㄴ).

75) 光伊[광이]

光伊는 '광이'의 차자 표기로, 光은 '광'의 음가자, 伊는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광이'는 현대어 '괭이'에 대응한다.

光伊一柄/괭이 한 자루.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8ㄴ).

76) 覓西里[멱서리]

覓西里는 '멱서리'의 차자 표기로, 覓은 '멱'의 음가자, 西는 '서'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멱서리'는 짚으로 날을 촘촘히 결어서 만든 그릇의 하나로,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쓴다. '멱'이라고 하고, 방언에서는 '멕'이라고 한다.

覓西里二立/멱서리 한 닙.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8ㄴ).

77) 串之[곶이>꼿이], 燭串之[촛곶이>초꼿이]

串之는 '곶이>꼿이', 燭串之는 '촛곶이>초꼿이'의 차자 표기로, 串은 '곶-/꼿-'의 음가자, 之는 '지' 또는 '지'의 말음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곶이'는 '꼿이', '촛곶이'는 현대어 '초꼿이'에 대응한다. '초꼿이'는 촛대나 등 따위에서, 초를 꽂게 된 장치. 꼬챙이 끝처럼 뾰족하게 하거나 두겁처럼 만들어서 초를 박게 한다.

燭串之十箇/초꼿이 열 개. 『園幸乙卯整理儀軌』(부편1, 49ㄱ).

78) 羅兀[너울], 垂音[드림], 每緝[미즙>미즙], 赤古里[져고리], 簇頭里[족두리>족두리], 傍莫只[겻막이>곁막이]

羅兀은 '너울', 垂音은 '드림', 每緝은 '미즙>미즙', 赤古里는 '져고리', 簇頭里는 '족두리>족두리', 傍莫只는 '겻막이>곁막이'의 차자 표기로, 羅는 '라'의 현실음인 '나'의 유사음 '너'의 음가자, 兀은 '올'의 유사음 '울'의 음가자, 垂는 '드리-'의 훈독자, 音은 말음 'ㅁ'의 음가자, 每는 '미'의 음가자, 緝은 '집'의 유사음 '즙>즙'의 음가자, 赤은 '젹>적'의 일부음 '져>저'의 음가자, 古는 '고'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簇은 '족'의 음가자, 頭는 '두'의 음가자, 傍은 '겻>곁>곁'의 훈독자, 莫은 '막'의 음가자, 只는 '기' 또는 '기'의 일부음 '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너울'은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으로, 얇은 검정 깁으로 만든다. '드림'은 현대어 '드리개'에 대응하는데, 매달아서 길게 늘이는 물건을 이른다. '미즙'은 현대어 '매듭'에 대응하는데, 노, 실,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을 이른다. '겻막이'는 현대어 '곁마기'에 대응하는데, 여자가 예복으로 입던 저고리의 하나로, 연두나 노랑 바탕에 자줏빛으로 겨드랑이, 깃, 고름, 끝동을 단다.

羅兀次冒緞八尺五寸…垂音次柳靑綾長十八尺…每緝次紅絲…赤古里次五

色禾紬四尺五寸…簇頭里一部…傍黃只次草綠禾紬六尺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盤纏, 48ㄴ-49ㄱ).

79) 吐里[토리]

吐里는 '토리'의 차자 표기로, 吐는 '토'의 음가자, 里는 '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토리'는 실이나 면 따위를 둥글게 감은 뭉치를 이르기도 하고,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뭉치나 면뭉치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朴古之五吐里/박고지 다섯 토리.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6ㄴ).

80) 沙里[사리]

沙里는 '사리'의 차자 표기로, 沙는 '사'의 음가자, '리'는 '리'의 음갖 표기이다. '사리'는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를 이르기도 하고,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수, 새끼, 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麵四沙里/면 네 사리. 『園幸乙卯整理儀軌』(권4, 饌品, 6ㄴ).

3. 맺음말

지금까지 『園幸乙卯整理儀軌』에 나타나는 物名의 차자 표기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다른 의궤류와 고문헌을 중심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기존의 국어사전류와 한국한자어사전 등에 잘못 등재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고문헌을 해독하거나 역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사라진 고유어를 상당부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園幸乙卯整理儀軌』

오창명(1997), "儀軌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 연구(1):조선 후기 복식 어휘를 중심으로(1)", 『한국복식』 15집, 단국대학교 부설 민속학연구소.